

#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PASTORAL CENTER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b>주임신부</b> Fr. Kimin An 안기민 사도요한 (510) 562-3843 email : joannesan2011@gmail.com  <b>사목회장</b> 정일양 안드레아 (오일공)육철이-삼구구육 email : iychung53@yahoo.com	<b>사무실</b> Tel (510) 553-9434 Fax (510) 639-4842 email : standrewoak@gmail.com 화, 목 휴무 <b>선종봉사회장</b> 팽현팔 하비에르 (오일공)팔사칠-삼공일사
---	---

미사	주일미사	오전 11시	성사	고백성사	매 미사 30분 전
	평일미사	화/목            오후 7시 30분 수/금/토        오전 11시		유아세례	사무실에 신청
				혼배성사	3개월 전 사무실에 신청
				환자봉성체	병자성사는 언제든지 신청

신심 단체	레지오마리아	매달 두 번째 월요일 저녁8시 총회합	성시간	첫 목요일 저녁 미사 후
	성령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온라인	예비자교리	매주 주일 오전 10시 교육관 106호
	향심기도회	매주 월요일 저녁 8시 온라인	주일학교	주일 오전 9시 15분 온라인
	지속적인성체조배	일시 정지	한국학교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 11시 반 온라인

## < 연중 제 12주일 6월 20일 미사 전례 >

**[제 1독서]**        욕 38,1.8-11

**[화 답 송]**        시편 107(106),23-24.25-26.28-29.30-31(◎ 1 참조)

◎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분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배를 타고 항해하던 이들, 큰 물에서 장사하던 이들.  
그들은 주님의 업적을 보았네. 깊은 바다에서 그분의 기적을 보았네. ◎
- 그분 말씀에 사나운 바람 일자, 커다란 파도가 높이 솟았네.  
그들이 하늘로 솟았다가 바다 깊이 떨어지니, 그들 마음이 괴로움에 녹아내렸네. ◎
- 곤경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자, 역경에서 그들을 빼내 주셨네.  
광풍을 순풍으로 가라앉히시니, 거친 파도 잔잔해졌네. ◎
- 바다가 잠잠해져 기뻐하는 그들을, 원하는 항구로 그분은 이끄셨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자애를, 사람들에게 배푸신 그 기적을. ◎

**[제 2독서]**        2코린 5,14-17

**[복음환호송]**    루카 7,16

◎ **알렐루야.**

○ 우리 가운데에 큰 예언자가 나타나셨네.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 ◎

**[복 음]**            마르 4,35-41

전례 봉사						
	6월 22일(화)	6월 23일(수)	6월 24일(목)	6월 25일(금)	6월 26일(토)	연중 제13주일
<b>미사해설</b>	이명련 파트리샤	이은자 마트로나	장희숙 루시아	이명련 파트리샤	허홍숙 세실리아	황혜정 데레사
<b>독서</b>	이명국 바오로	이기자 요안나	이선미 에스터	이경란 베로니카	이명란 아녜스	최대연 다니엘 이정연 골롬바
<b>제의방</b>	허홍숙 세실리아	허홍숙 세실리아	정진희 데레사	임은석 클라라	임은석 클라라	정진희 데레사 임은석 클라라

하느님과 이웃을 섬기는 공동체

## ◆ 예수성심성월

6월은 예수성심성월입니다. 6월 한 달 동안 매주 목요일 미사 후에 성체현시와 성체강복이 있습니다.

## ◆ 수요일 평일 미사 시간 변경

수요일 오전 11시 미사(6월 23일 수요일부터)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성당 옆 '초등학교 야외 수업'을 위해 본당 주차장 사용을 요청해서 그동안 수요일 아침 미사를 저녁 미사로 했었지만, 본당 정상화에 따라 이번 주부터 수요일 오전 11시 미사로 변경합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 기도 부탁드립니다.

박영실 데레사, 김아레 카타리나, 박종영 요한, 이윤지 소피아.- 공동체 기도 지향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미사 전에 기도 신청자를 위하여 주모경 한 번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 ◆ Father's day

오늘 Father's day를 맞이하여 '아버님' 들께 코사지를 달아드립니다. 이 머나먼 나라에서 가정과 가족을 위하여 묵묵히 자부적인 사랑으로 열심히 일해 오신 아버님들, "아버지 날"을 맞이하여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고 계속 힘내시고 주님의 은총 가득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 요아킴/안나회 위로잔치

6월 27일 교중미사 후, 대견회에서 그동안 코로나19로 힘들어하신 본당 어르신들을 위로하는 점심식사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음식 준비를 위해 미리 김문환 베드로 형제님 (오일공-사공철-이오공이)에게 신청해 주십시오.

## ◆ 청년회 출범

청년들의 모임인 뜨락회와 하모니회를 청년회로 통합하기로 두 단체에서 결정했습니다. 35세 이하(한 배우자가 35세 이하여도 됨) 많은 미혼/기혼 청년들이 함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대회장 : 김다솜 아델라/김수연 안젤라  
부회장 : 유병희 라우렌시오/심혜란 에스텔  
총무 : 정승혜 세레나/이윤조 프란체스카

## ◆ 프란치스코 교황님 회칙 『찬미를 받으소서』 읽기

매주일 공지 사항 후에 환경생태 분과장 이 마트로나 자매님께서 주보에 있는 회칙 『찬미를 받으소서』 해설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 ◆ 사목회가 오늘 교중 미사 후에 교육관 107호실에서 있습니다.

## ◆ 사무실 휴무일 변경 안내

본당 평일 미사 시간에 따라 사무실 휴무일이 기존 화/금에서 화/목으로 변경됩니다.  
근무시간은 평일 오전 9시 반에서 ~ 오후 5시 반까지입니다. (토/일 9시 ~ 5시)  
\* 주일 업무는 친교실에서 봅니다.

## 6월 구역반 모임

1	오uckland	6월27일(일)7시반	줌미팅
	알라메다	6월21일(월) 8시	줌미팅
4	캐스트로 밸리	6월25일(금)7시반	줌미팅

## ◆ 본당 회합실 사용 안내

본당 정상화에 따라 본당 회합실을 사용하실 때 사용 전에 사용 신청서를 미리 작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사용하시는 단체는 일년에 한 번만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회합실 사용 후에는 반드시 뒷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당의 모든 물건을 내 집 물건처럼 소중하게 여기시고 아껴 사용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본당 청소

6월 26일(토) 오전 11시 30분부터 빗자루회 주관으로 본당 청소가 있습니다.  
문의 : 이덕용 대건안드레아 오일공 칠칠삼 사삼팔삼

## ◆ 마스크 착용

오uckland 교구의 지침을 따르지만, 백신을 접종했다라도 미사 때 마스크 착용을 원하시는 분은 마스크를 착용하셔도 됩니다. 미사 때 많은 사람이 실내에 모이는 만큼 가능하면 마스크를 착용하면 좋겠습니다.

## ◆ 모임 안내

- \* 사목회의 : 매월 셋째 주일 미사 후 교육관 107호실
- \* 구반장회의 : 매월 넷째 주일 미사 후 교육관 106호실
- \* 꾸리아 : 매달 두 번째 금요일 저녁 8시 중
- \* 성령기도회 :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카톡 모임
- 매월 둘째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중
- \* 울뜨레아 : 매월 첫째 주일 오후 8시 중
- \* 향심기도회 : 매주 월요일 저녁 8시 중 기도회
- \* 성모회 : 매월 셋째 주일 저녁 8시 중
- \* 모니카회 : 매월 첫째 주일 오전 9시 반 중

## ◆ 감사합니다.

- \* 아버지 날 코사지 준비해주신 봉사자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 성당청소해주신 빗자루회 회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 지난 한 주간 동안 전례 봉사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 ◆ 2차 헌금

6월 27일 : 교황주일 Holy Father (Peter's Pence)

## ☞ 새양/잃어버린 양 모시기를 위한 묵주기도

6월 19일 현재 집계 : 328,342단



## 영명축일을 축하합니다.

- \* 요한 세례자(6/24) : 박종영, 강신호, 이진우, 정석준, 양우선, 이건호, 김종식
- \*\* 안토니오(6/13) : 정태준, 김휘
- \*\* 율리타/율리엤타(6/16) : 김정희, 신정열, 이인숙



프란치스코 교종이 회칙 「찬미를 받으소서」를 발표했다. 우리는 ‘회칙’이라고 부르지만, 모든 사람이 돌려가면서 읽으라고 보낸 편지(encyclical letter)라 할 수 있다. 그날 저녁 어느 뉴스 보도는 교종의 이 회칙을 두고 미국의 어느 정당이 즉각 반발했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놓고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는 것이다.

우리의 현실, 우리 교회는 어떤 태도를 취할까 자문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교종은 오늘의 우리가 “자기 파괴적 악행을 키운다”고 본다. 어떻게? (“우리가 키우는) 그 악행들을 보려 하지 않고, 그 악행들을 인정하려 하지 않으며, 중요한 결정을 미루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가장함으로써” 그렇게 한다는 것이다. 교종은 이를 한 마디로 “회피”의 면허증이라고 부르면서, 이 면허증으로 오늘의 우리는 “지금의 생활 방식과 생산과 소비 모델을 지속”(「찬미를 받으소서」 59항)시키려 한다고 지적한다.

프란치스코 교종의 회칙 「찬미를 받으소서」는 절규에 대한 응답이다. 그것도 ‘사람들의 삶에 실제 영향을 주는’ ‘폭력’ 때문에 곳곳에서 들려오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듣고 하는 응답이다. 교종은 편지에서 우리의 누이와 어머니가 울부짖으며 우리에게 탄원하고 있다고 알린다. “이 누이가 지금 우리가 그녀에게 입힌 상처 때문에 울부짖습니다...우리는 그녀에게 [그것도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고 있습니다”(「찬미를 받으소서」 2항). 누이란 누구인가? 나와 피를 나눈 혈육이 아닌가? 그 누이는 또 누군가의 어머니이다. 그 어머니가 또 자식들이 입힌 상처 때문에 고통스럽게 울부짖는다. 이 누이이며 어머니는 바로 ‘대지’이다.

지금 “환경의 악화와 인간의 타락과 윤리의 퇴보”(「찬미를 받으소서」 56항)가 긴밀히 결부돼 “끔찍한 불의”(「찬미를 받으소서」 36항)를 저지르고 있지만, 대다수 우리는 “회피”의 면허증을 가지고 그 불의에 침묵한다. 그러는 사이에 누이이며 어머니인 대지는 신음하고, 하늘과 땅과 물에서 자신의 존재로서 창조주이신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무수한 피조물의 찬미 노랫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고, 무수한 사회적 약자와 가난한 나라들은 배제되고 버려져 존재하지 않게 된다(「복음의 기쁨」 53항 참조).

교종은 「찬미를 받으소서」 회칙 제1장에서 ‘우리의 공동 가정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고 묻는다. 오염과 기후 변화, 물 부족, 생물 다양성 상실, 인간 삶의 질 저하와 사회의 붕괴, 지구의 불평등 문제들에 대한 검토를 제안한다. 교종은 이 문제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더 이상 카펫 아래에 쓸어 넣을 수 없다”고 언명한다. 그리고 이 검토가 우리의 “고통스러운 자각” “세상의 고통을 인격적 고통으로 전환시키기”, 그리고 “행동의 길 찾기”를 위한 것이라고 밝힌다(「찬미를 받으소서」 18항).

교종은 이어 지구가 앓고 있는 ‘병의 증세’를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소개하면서, 문제를 야기한 배경 곧 구조적 원인을 밝힌다. 가령, △진보와 인간 능력에 대한 비이성적 신뢰(19항) △기술과 기업 이익의 결합(20항) △내다버리는 문화와 자원 보존 능력을 결여한 산업 시스템(22항) △환경 문제를 악화시키는 악순환(24항) △환경 악화로 야기된 고통에 대한 광범위한 무관심과 동료에 대한 책임감 상실(25항) △일부 더 많은 자원과 사회적 정치적 권력을 소유한 사람들의 이기적 관심(26항) 등이다.

교종은 이렇게 기득권 세력이 거북해하고 불편해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다. 왜? 그리스도교 신앙 때문이다. 하느님의 뜻,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성령의 인도에 따르는 교회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선적 선택’의 길을 걸어야 하기 때문이다. 교종은 회칙 「찬미를 받으소서」를 통해서 약한 존재, 약한 사회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윤이나 무분별한 착취에 휘둘리는 또 다른 힘없고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존재들, 피조물 전체”(「복음의 기쁨」 215항)의 신음에 응답하고 있는 것이다.

- 평화신문에서 발췌

- 우리의 정성

- < 주일헌금 > \$1,507
- < 교무금 > \$1,720  
권재복(4-6) 임민영(1-5) 최윤기(6) 임윤택(6) 이명란(6)  
김관숙(6) 성동화(6) 이범준(6) 김영희(7) 김현규(5-6)  
최명주(6) 이덕용(6) 김순덕(5-8)
- < 성소후원금 > \$ 80  
최윤기(6) 임윤택(6) 이명란(6) 이덕용(6)
- < Bishop's Appeal > \$ 50  
최윤기(6) 이덕용(6)
- < 감사헌금 > 김관숙
- < 빈첸시오 후원 > \$ 150 정기환, 최명주
- < 선교 후원 > 김관숙

< 우리의 목표 >

- ♡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
- ♡ 신바람 나는 공동체  
(성령의 은총이 가득한 공동체)

< 실천사항 >

1. 하느님과 이웃을 섬기는 공동체
2. 복음을 읽고 실천하는 공동체
3. 신앙의 진리를 끊임없이 배우는 공동체
4.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공동체

- 미사지향

날짜		지향	봉헌자	날짜		지향	봉헌자
6/20(일)	연	이마르코(재상)	이골롬바(정연)		생	성서사십주간구약반	북가주가톨릭성서모임
	연	김에드워드(지성)	김케네스 가족		생	김카타리나(아레)	이바오로(영국)
	연	이세레나(남희)	이바오로(영국)		생	김카타리나(아레)	이아네스(명란)
	연	주요셉(봉진)	주마리아(정희)	6/22(화)	연	이세레나(남희)	이바오로(영국)
	연	유데레사(춘성)	가족		연	김요아킴(형찬)	가족
	연	전안드레아/정시몬	전마리아/아네스		연	정미카엘	가족
	연	정베드로(창희)	정아가다(청자)		연	윤바오로(천호)	가족
	연	최모니카(임구)	최안드레아(용석)		생	이아고보(원진)	이바오로(영국)
	연	송아벨(성호)	송아네스(성숙)		생	김카타리나(아레)	이바오로(영국)
	연	김다윗(승우)	황말찌나(정숙)	6/23(수)	연	정미카엘	가족
	연	황마르코(문환)	황말찌나(정숙)		연	윤바오로(천호)	가족
	연	정미카엘	가족		생	이에스터	윤세레나
	연	김프란치스코(범식)	김마리안나(정임)		생	이스텔라(재숙)	김엘리사벳
	연	윤바오로(천호)	가족	6/24(목)	연	정미카엘	가족
	연	김막시밀리안	황율리안나(정기)		연	윤바오로(천호)	가족
	연	조바울라(숙자)	조바실리오(진행)		연	이마리아(호순)	이에스터
	연	황프란치스코	가족		생	정데레사(진희)	윤세레나
	연	황프란치스코	옥제노베파		생	김요한세례자(종식)	월넛크릭반
	연	윤레오(기창)	윤루카/루시아		생	김요한세례자(종식)	가족
	연	박바오로(양준)	가족		생	조마리아(상희)	유리디아
	연	최도밍고(근주)	최안드레아(용석)		생	이바롬	황데레사
	연	최헬레나(신경)	최안드레아(용석)		생	정요한(석준)	정가브리엘라
	연	김제이슨(재성)	김케네스 가족		생	김카타리나(아레)	이아네스(명란)
	연	김요아킴(형찬)	가족	6/25(금)	연	정미카엘	가족
	연	도요셉/장마리아	부필로메나		연	윤바오로(천호)	가족
	연	이마리아(호순)	이에스터		생	김카타리나(아레)	이아네스(명란)
	연	유바오로(웅초)	유베로니카(낙양)	6/26(토)	연	이세레나(남희)	이바오로(영국)
	연	이마리아/부모형제	윤사비나		연	주요셉(봉진)	주마리아(정희)
	생	김요안나(만옥)	윤루카/루시아		연	전안드레아/정야고보	전알렉산델/스텔라
	생	박데레사(영실)	신율리엠타		연	정미카엘	가족
	생	박데레사(영실)	익명		연	윤바오로(천호)	가족
	생	박데레사(영실)	조요안나		연	조바울라(숙자)	조바실리오(진행)
	생	이안젤라(진의)	익명		생	이안젤라(진의)	정가브리엘라
	생	박요한(종영)	박안나				

<p><b>대 건 한 의 원</b> 한의학박사 이 준 침·한약·체중조절·통증조절·체질감별·건강상담 401 Roland Way #225 Oakland (510)444-1010</p>	<p>좋은 사람들, 좋은 이웃들이 만들어 가는 곳 <b>신세계 여행사</b> SHINSEGAE TRAVEL 510-688-0155 이 베로니카 510-688-0157 이 레이몬드</p>	<p><b>정 태준(안토니오)</b> 자동차정비 &amp; 바디 Work 929 38th Ave. Oakland, CA 94601 ☎ 510-552-4418 Fax 510-535-0818</p>	<p><b>한인 크레딧 유니온은</b> 금융기관입니다. 자동차대출, 체크킹, 적금 <b>(213) 368 - 9000</b></p>
<p><b>송 이 응 법 무</b> (510)292-6050 ldanea.song@gmail.com 1723 Telegraph Oakland</p>	<p><b>조미정 공인회계사</b> 세금보고 및 회계감사 Business Consulting ☎ (925)803-0200 ☎ (510)504-9250</p>	<p><b>J &amp; J Auto Service</b> 자동차 정비와 바디수리 ☎(510) 236-0550 강 요한</p>	<p><b>맥정(말가리다) 공인세무사</b> · Income Tax · 세무장부정리 · 신규회사 설립 · 경영, 재정상담 ☎ (510)893-2377 2633 Telegraph Ave. #213 Oakland</p>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공동체